

# 근대건축물 문화재의 실내장식 수복에 관한 연구(Ⅰ)

- 보존의 개요와 벽체 및 천장수복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Interior Restorations in the Pre-Modern Architecture

- Focused on Concepts of the Preservation, Restorations of the Wall and Ceiling -

김란기\* / Kim, Ran-Ky

윤영선\*\* / Yoon, Young-Sun

## Abstract

This study is arranged the principles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in pre-modern architecture, presented guideline of the interior restoration in there, and attempted relative-analysis by cases of Japan in wall and ceiling. The method of Original-restorations and Repairs must be preserved in materials and technologies in order to hand over the future generations. The process and method of restorations are the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as Architecture's itself.

키워드 : 근대건축, 실내장식, 수복(修復), 문화재수복, 문화재보존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산업경제가 발달할수록,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이에 맞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산업화를 경유하면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었고 그 같은 과정을 겪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6년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정하여 보호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해 온 이래 1962년에는 근대적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화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같은 단계를 밟아오면서 발전한 문화재 보존의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근대건축물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가해지는 수리 혹은 복원에서 건축물의 실내장식 수복은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현실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건축물에서의 보존 철학의 실천, 실내장식부분의 문화재적 인식 및 그것의 실질적인 실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 정회원,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공학박사

\*\* 정회원, 극동정보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조교수,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우선 근대 건축물 문화재의 수리 복원의 기본원칙을 개관하고 이것들이 국제적 문화재보존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진행되는가를 정리하였다. 또한 실내건축분야에서 일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개념인 창작과는 다른 실내장식의 보존이라는 측면<sup>1)</sup>에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며, 이것의 실천적 방안의 제시로서 미장공사, 도장공사, 내장공사 등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중 벽과 천장의 수복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실내장식 수복의 기본원칙 제시와 실제공사에 있어서 그 원칙이 충실하게 실행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물 토대로 근대문화재 수복이 시급한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한편 본 연구의 문헌자료로는 국제적 선언문, 발표문, 현장 등을, 일본에서의 실행된 사례분석에는 수리공사 보고서 및 관련 문헌자료, 또한 유사사례의 보존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던 경험 및 유사 공사의 현장답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sup>2)</sup>

1)인테리어디자인에 있어서 창작적 개념은 문화재에 있어서 인테리어 보존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인테리어에서는 창의적인 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서 아이디어와 새로운 감각이 필수적이나 문화재는 변형이나 변경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기존의 것을 살려내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차이점이 이미 상식화되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상세한 記述는 생략코자 한다. 따라서 창건초기의 인테리어의 재생, 복원, 수리에 국한하여 어떻게 원형에 가깝게 살려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근대건축물문화재 보존과 수복

### 2.1. 문화재보존의 개요

#### (1) 용어정의

① 보존(Preservation) : 비문화재의 일상적인 존재에 대해 문화재의 의도적 지속과 그 지속을 위한 제반행위를 수반하는 용어. 문화재적 의의와 보호의 의미를 내포. 또한 수리를 한다든지 보강조치를 하여 능동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이에 대해 보전(保善; Conservation)은 현상 그대로의 건물을 비교적 수동적으로 유지해 나가며, 가급적 기존의 구조에 행위를 가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 또한 보호(保護; Protection)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파손이나 멸실,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유지하는 것. 방어적 의미가 강하다.

② 수리(修理; Repair) : 문화재 보존에서 사용되는 수리는 부식이나 노후, 부후(腐朽), 파손 부분만을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 부분의 부재, 부위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수리는 본래의 기법(공법), 자재(재료, 사양), 연장(도구), 기술(시방)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가장 근접한 것을 사용한다. 나아가 현대적 기법이나 모조품은 가능한 피한다.

③ 복원(復原; Restoration) : 대상물(건축물)이 변형되었거나 없어진 경우 과거의 특정상태(기간), 혹은 창건초기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과거의 형태로 재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 과거의 특정상태로 되돌릴 때 그 동안의 역사적 흔적을 지우거나 없애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형복원 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철저한 고증과 최대한 당시의 기법에 의해서 행해야 하며 이것들을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수복(修復) : 수리와 복원의 합성어

#### (2) 기술의 보존

기술보존이란 일반적으로 대대로 전해오는 기술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즉 이미 잃어버린 기술이나 건축물 자체에 숨겨져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실제로 건축물의 수복시 해체조사 등을 통하여 창건 당시의 기술이 해명되기도 하지만, 이때에 원형의 건축이 파괴되어 결국 그 기술이 상실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술의 해명을 후세에 맡겨도 되는 때에는 수복시에 되도록 손을 대지 않고 후세에 넘겨 그대로 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다만 수복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그 상황이 수복이나 수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 노후나 파괴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나 개조나 개수에 의해 바뀌었던 곳을 그 이전상태로 복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필수적으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기술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창건 당시의 사양과 시방을 그대로 답습하여 복원해야 한다. 현재에 존속하는 부분은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도모하여 남겨두어야 하고, 멸실된 부분은 본래의 사양과 시방을 최대한 답습하여 복원해야 한다.<sup>3)</sup>

한편 기술의 보존은 필수적으로 연장의 보존을 수반한다. 이는 동일한 재료(자재)를 동일한 기술로 생산 혹은 가공하려할 때 완전한 답습을 위해서는 동일한 연장 혹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연장과 도구, 혹은 기기가 사라지고 없다. 이같이 사라진 연장을 찾아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남아있는 부재를 사광라이트법과 탁본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적을 찾아내고 조사연구 하여 과거의 연장을 추정해 내고 재현하고 있다.

#### (3) 기록의 보존

중요한 문화재 건축물의 수복에서는 근본수리를 행할 경우 학술자료가 될 수 있는 보존용의 도면과 공사보고서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수복의 기록과 거기서 얻은 지식을, 널리 일반에게 공표하여 후세에게 전하는 것은 수복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일이다. 건물 자체와 건물 수복의 경과를 이해하는 것은 도면과 공사보고서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의해 건축적 가치판단이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4)</sup>

공사보고서는, 종래부터 「수리공사보고서」라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공사과정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공사종료시에 정리하는 것으로, 수복의 과정과 성과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다. 기록은 조사의 조서와 수집한 자료류, 공사의 설계도서, 사무 서류 등의 방대한 양이며, 이것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추출하고, 알기 쉽게 집필하여 정리하는가가 요점이다. 따라서 해체조사 종료시점에 미리 구상, 집필의 분담을 정하고 공사중 항상 삽화의 작성이나 본문의 집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유념하여 기록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리 보고서 등에서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단체나 기관(ICOMOS<sup>5)</sup>, DOCOMOMO<sup>6)</sup>)등에서 기록보존을 강조하는

3) 木村 勉, 近代建築解體新書 - 修復の計書と技術. 建築修復學會, 東京, 1994, pp.90-91

4) 木村 勉, 앞 책, pp.52-54

5) 유네스코의 실질적인 산하단체인 이코모스(ICOMOS)는 '베니스헌장(Venice Charter)'으로 명명된 1964년 제2회 역사적기념건조물관계건축가기술자국제회의에서 '기념건조물 및 유적의 보존과 수리를 위한 국제헌장'을 채택하여 기념건조물에 관한 보전, 수리, 발굴, 공표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1999년 '이코모스 특별국제학술위원회'에서 '역사적 목조건조물보존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여 목조건조물에 대한 한층더 세밀한 보존원칙을 선언하였다.

6) DOCOMOMO는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근대운동과 관계되는 건물과 환경 형성의 기록,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조직)의 약자로

2)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모범적인 수복사업의 하나지만, 일본의 모든 현장이 이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수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공사는 이미 1980년대-9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의 공사후의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 (4) 과학적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하는 과학적 보존처리가 이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는 목재 등의 연대를 측정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들도 포함되는데 이 같은 방법은 문화재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취하여 실시한다.<sup>7)</sup>

실내장식재를 포함한 목조 문화재 건조물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보존처리에는 PEG함침법, 진공동결건조법, 고급알콜법, 실리콘수지법, 용제수지법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sup>8)</sup>

## 2.2. 근대건축물문화재보존의 개요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건축이 유입되어 정착한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은 2001년 등록문화재제도가 도입된 이래 활성화되어 64건이 등록되었다.

그 이전까지 근대건축물은 국가지정 사적(29건), 시도지정의 유형문화재(22건), 기념물(35건), 문화재자료(8건) 등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었지만 세밀한 수복방안은 강구되지 못하였다.

### (1) 전통 건축물문화재 보존개념과의 차이점과 특성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수복 혹은 수리(보수)는 불사와 궁궐건축 등 전통적인 건축물에 하였다는 선입관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근대건축물로서는 일부 공공건축물과 교회건축물 등에서만 현실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수리, 개변, 증축 등이 행하여 왔다.

전통건축물의 수복현장에서는 정통적으로 시행해 온 수리 및 보수를 통해 기술과 지방이 장인들을 통해서 전승되어 오고 있었고 이것들은 오늘날 각 사찰이나 궁궐공사현장에서 실현되

1988년, 네델란드의 아인트호헨 공과대학 교수였던 후베르 얀 헨켓트(Hubert-Jan henket)씨의 개인적인 제창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0년, <아인트호헨 선언(Eindhoven Statement)>을 채택하고 활동을 개시하여, 현재는 서유럽 제국을 중심으로 40개국의 나라에서 참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5월 DOCOMOMO KOREA의 창립대회를 열고 한국의 근대건축(Architecture of Modern movement)의 보존과 인식의 확대를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7) 연대측정의 과학적 방법은 육안 측정의 나이테연대측정법에서 발전시킨 분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휘트트랙측정법(Fission Track Method), 열발광연대측정법, 흑요석의 수화층에 의한 연대측정법, 고고지자기에 의한 연대측정법, ERS/전자스핀공명측정법, 아미노산 라세미반응 연대측정법 등이 있다. 澤田正昭 저, 김성범, 정광용 공역, 문화재보존과학개설, 서경문화사, 2000, p28. 그러나 발굴된 매장문화재 등에도 사용되는 연대측정법에는 가속기 질량분석법 등 탄소 동위원소 존재비율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平尾良光 저, 최영희 역, 문화재를 연구하는 고학의 눈, 학연문화사. 2001. pp.16-22.

8)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리콘수지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처리 방법에 비해 그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발수성이 풍부해서 습기에 대한 저항력이 크며, 내후성도 크다. 또한 목재의 갈라짐이나 이음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공법이 있는데 대개 아크릴수지나 에폭시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밖에 문화재 보존에서 과학적 보존처리 분야는 금속(철물)재, 발굴 유물, 석조물, 벽화, 벽지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근대문화재 보존에서는 (적)벽돌, 직물, 공업제품, 유리 등이 있다. 澤田正昭, 앞 책, pp.87-125

고 있다. 이 곳에서도 보존을 위한 인식의 여러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지만 근대건축의 수복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비교적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통건축물은 목조건축물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노후나 재해에 의한 수복의 필요성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sup>9)</sup>

한편 개화기 이후 도입된 근대건축은 목조로부터, 벽돌조나 석조에 몰탈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조적조, 그 규모의 확대, 더불어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로도 발전하였다. 구조나 외장으로 보는 형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재료나 기술, 전통을 이어받은 것에서부터 당시의 첨단적 서양의 것들까지 여러 가지로 많았고,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지붕은 종래와는 달리 금속판이나 슬레이트로 잇는 것도 많이 있었고, 내외부의 목부(木部)는 페인트나 와니스로 도장하였으며, 창에는 유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종래의 건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카페트, 커튼, 벽지, 난로, 상들리아 등의 내장이나, 전기, 급배수, 난방 등의 설비도 생겼다. 또 한편으로는 목조로부터 석조,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기준에서 구조적 약점이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동시에, 이것들을 앞으로 영구히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본 건축물에 걸맞는 활용을 생각하고 보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적 상황으로 생각된다.

### (2) 근대문화재보존의 국제적 개념

근대문화재 건축물의 보존개념은 우선 근대건축물의 개념부터 설정함이 요구된다.<sup>10)</sup> 이때에 일반적으로 근대건축이라하면 대개 석조, 혹은 벽돌조 등을 연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외면적인 모습이고 대부분의 근대건축은 내부에, 특히 지붕구조에 목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분석에 있어서는 목구조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 부분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상기의 관점에서 문화재 혹은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보존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의 기준을 제시하면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회), ICCROM(문화재보존수복연구 국제센터), DOCOMOMO(근대운동과 관계되는 건물과 환경 형성의 기록,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조직)<sup>11)</sup> 등이 있다. 이 중

9) 이에 대해 근대건축물은 기능의 변용, 증축이나 개축 등의 요인에 의한 수복이 요구되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0)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근대건축이라함은 근대화 과정에서 이식된 서구적 이양건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식적으로 모더니즘 건축 혹은 근대운동(Modern movement)에 의한 예술적, 철학적 개념에 의하여 발전된 건축을 말할 때도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이라 칭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연구에서 전자를 주 대상으로하고 이 양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범위로 하였다.

11) 한편 <도쿄모모 현장>에서는 a. 건축의 근대운동과 관계되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문서 조사, 보존에 있어서 기술, 사상의 교환. b. 건축의 근대운동과 관계되는 건축과 도시의 감시로서의 행동. c. 건축의 근대운동과 관계되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일반적 사회인식의 촉진. d. 건축의 근대운동과 관계되는 중요 건축물의 보존, 혹은 기록의 국제적인 등록 등을 채택하여 근대운동의 건축물에서도 그 보존의 인식과 실천을 천명하고 있다.

1999년에 열린 ICOMOS 특별국제학술위원회에서 작성된 '역사적 목조건조물보존을 위한 원칙'을 검토해 보면 그 보존 원칙<sup>12)</sup>중에서 특히 기술보존(지역기술)의 문제와 관련되는 조항들이 언급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조치는 전체로서 고려하여야 하고 구조, 장식, 지붕과 각종의 수장부재 등을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더욱이 플라스틱, 페인트, 벽지 등 마감재 역시 당초의 재료와 기술, 그리고 그 성질을 가능한 답습해야 한다.
  2. 가공이나 건설기술은 연장이나 기계를 포함해서 당초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못과 같은 보조재료는 당초의 것을 답습하여 사용하고 전통적인 맞춤이나 이음을 가능한 한 이용하여야 한다.
  4. 새로운 부재는 구부재에 대하여 인위적 부식 혹은 모방변형은 부적절하다.
  5. 신구부재의 구별을 위하여 신부재에 후세에 구별가능하도록 표시를 한다.
  6. 현대적 재료 및 구조재에 의한 현대적 기술은 최소한으로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다.
  7. 각종 설비시스템은 역사적, 미적 가치의 인식하에 설치해야 한다.
  8. 방부재와 같은 화학적 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조사로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확실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해야 한다.
- 등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 3. 근대문화재 실내장식의 복원

#### 3.1. 개요

일반적으로 건축물문화재의 수복은 크게 건축수복, 구조보강, 외장수복, 내장수복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① 이중 건축수복은 건축적 수복으로서 건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말한다. 즉, 지반 및 기초, 기단, 바닥, 마루(툇마루) 등으로 이루어진 바닥구조, 기둥, 벽, 창호,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구조, 지붕가구, 처마, 천장, 지붕이기 등으로 이루어

진 지붕구조를 말한다.

② 구조보강은 건축물의 노후, 부후 등으로부터, 재해로부터 붕괴 혹은 파손을 예방하거나 혹은 후에 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것을 공종별로 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는 벽체를 보강하기 위하여 내벽에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기둥이나 보에 철근콘크리트를 증설, 증대시키는 방법, 구조체에 댐퍼(damper)를 끼워넣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목조에 있어서 구조보강은 기초 혹은 바닥구조에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브레이스를 건다든지, 구조융합판을 대는 방법 등이다. 목조의 몸통부나 지붕구조부에서도 이같은 방법을 쓰게 된다. 기타 철골구조나 벽돌구조, 석조에서도 그에 맞는 구조보강을 하게 된다. 요컨대 건축물문화재 보존의 한 수단으로서 그 구조체 자체를 보존, 유지면서, 부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 외장수복은 건축물의 실내부분이 아닌 외부로서 기단부, 외부계단, 발코니, 외벽의 구조 및 마감, 지붕이기, 처마, 흙통 등 건축물문화재의 보존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되는 외부에 대한 수복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상기와 같은 공종별로 나누어 공종별 수복공사방법이 나열된다. 또한 장식적 마감재, 내구적 마감재, 보존처리적 마감재 등도 외장수복 공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페인트공사, 와니스공사, 발수제, 도장공사 등도 포함된다.

④ 본연구의 주요 부분이 되는 내장수복은 문화재 건축물의 인테리어를 창건초기 혹은 일정시기까지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없어진 부분은 복원하고 낡거나 파손된 것은 수리하여 그 상태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건축적 장식공사, 장식적 마감재공사, 공업제품 등이 그것이다.

건축적 장식공사는 보다 건축에 가까운 공종으로 천장의 수리, 내장돌붙이기, 내장 벽돌쌓기 등이고, 장식적 마감재공사에는 미장 및 도장공사, 내장목공사, 몰딩공사 등이 그것이다. 또 공업제품으로는 바닥마감재, 커튼, 유리, 조명기구 등을 들 수 있다.

### 3.2. 실내장식 수복의 공사기준<sup>13)</sup>

실내장식의 수복은 건축적 장식공사보다는 장식적 마감재공사 및 공업제품의 공사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다. 건축적 장식공사는 실제로 건축공사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12)그 보존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의 다양성의 인정 2. 목재의 수종과 성질의 이해 3. 목재의 부식이나 변형에 의한 손상의 인식 4. 그로 말미암은 전통적 디자인과 건설기술, 지식의 손실을 인식 5. 이에 필요한 보존의 행동이나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 6. 베니스현장, 베라현장, 이에 관련한 유네스코와 이코모스의 견해를 존중하며 역사적 목조건축의 보존에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 조사, 기록 그리고 자료화 2. 유지관리 3. 보존의 조치 4. 수리와 교체 5. 현대적 재료와 기술 6. 교육 및 양성 등의 문제에 관하여 상세한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보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같은 조항들은 세심함과 더불어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 文化遺産保護委員會 憲章小委員會, 文化遺産保護憲章 - 研究, 檢討 報告書-, 1999. 3. 31

13)이것은 일본의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건축과와 문화청 문화재부 건조물과와 위탁에 의해 [역사적 공공건축물의 보존재생활용에 관한 간담회 (위원장 鈴木博之)]를 조직하여 일본 (재)건축보존센터의 [보존개수연구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건축물의 보존활용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본 대성출판사에 의해 발간(2002. 12)되기도 하였다. 별책으로 [공공건축물의 보존활용가이드라인 - 별책-]이 간행되었다.

다. 반면 후자의 두 종류의 공사는 건축공사에서는 대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두 종류의 공사에 관해서 포괄적인 공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공사의 방법은 각 시대의 건축물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시공방법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름대로의 변천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각각의 건축물마다에 맞는 수복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깊은 조사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별하여 원칙적인 공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문화재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수복공사로서 보존과 활용을 전제로 한 공사방법(시방)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 공사명으로 미장공사, 도장공사, 내장공사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1) 미장공사

미장공사는, 구조체로서의 벽의 기간(基幹)부분과 표면의 마무리 부분 및 비구조체인 장식부로 분류된다.

벽체의 해체 범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벽면마다 열화(劣化)나 변형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의 변형·왜곡의 수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벽체의 수리에 있어서는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옷바름으로부터 바름층마다 차례차례 벗기게 되고, 심벽의 외위기는 노후상황을 본 후 남겨두는 것도 있다. 전면적인 교체바르기는 해체수리등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시방이나 바름두께 등을 조사하여 같은 공법으로 재현한다.

벽면의 해체는 지방에 따라 차이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외위기 기법에 대해서는 기법확인이 필요하다.

중바름과 초벽토에 대해서는, 해체시에 나온 기존 흙을 보존했다가 재사용한다. 새로운 점성토와 짚여물을 혼합하여, 도중 몇 번정도 반복하면서 1년정도(기온 등의 조건에 따라서는 최저 반년 이상) 재운 후에 이용한다. 현재, 재료가 되는 점성토·짚여물·새끼줄·은행나무잎·패회(貝灰) 등은, 지역에 따라서는 입수 곤란할 때가 있으므로 그 수배(手配)에 대해서도 사전의 준비가 요구된다.

시공은, 초벌·중벌 등 각 공정의 기간을 건조와 양생을 위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겨울철 시공이나 양생, 특히 기온이 0℃이하가 되는 시기는 피한다.

#### ① 구조체부분

벽체부분의 미장공사에는 마감재의 공사를 위하여 벽체의 기간부분인 심벽부분까지 손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체로서의 기간부분은, 외위기 바탕의 심벽(眞壁)과 대벽(大壁)<sup>14)</sup>, 서양식 벽의 쥘대위기 바탕 대벽이 대표적이다.

근대 이후에는 대나무 외위기 바탕의 예가 대부분으로, 대나무를 새끼줄로 짠 외위기에 초벽흙을 발라, 얼룩 수선하기를 거쳐 중바름을 한다.

서양식 벽에서는 좁은폭 판자를 투과 붙이기로 하여, 내림조로 붙이고, 초벌바름을 하며, 요철수선을 거쳐 중바름을 한다. 여물·석회·풀 등의 회반죽 재료의 종류나 배합비는, 초벌, 중바름, 옷바름에 따라 조정한다.

부분적인 교체바름은 누수나 축부의 왜곡에 의해 파손된 벽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서, 해체 범위는 파손 정도에 따라 옷바름까지, 중바름까지, 초벌바름까지, 외위기 상태(쥘대위기)까지로 한다. 비해체 부분과의 접합면의 처리는 옷바름의 시공이나 마무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벌바름에서는 망사(網紗)를 붙이거나, 중바름에서는 모래 회반죽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다.

#### ② 표면 마무리 부분

구조체의 표면 마무리는 처마 밑이나 외부에 배치하는 기둥이나 보를 회반죽으로 발라 감싸는 외에, 몰탈칠, 타일붙이기, 인조석 물갈기 등, 다종다양하다.

미장공사 중에서도 특히 회반죽 등의 마감칠에 관해서는, 평벽부분이나 처마끝의 부연착고·기둥 장식 등을 얼룩없이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높은 기능을 가진 경험자가 필요하고, 전통 공법을 숙지한 사람이 바람직하다. 옷바름만의 교체바르기, 중바름 이상의 교체바르기, 옷바름에 덧바름하는 경우에는 벗겨지지 않게 일단 바탕을 합성수지로 처리하고 나서 행한다. 또, 외벽 회반죽면에 대해서는 내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란계수지(Silan Resin<sup>15)</sup>)를 바르는 것이 있다.

타일 등을 붙이는 시방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해체시에 잘 보존하여 재사용한다. 다만, 당초 사용된 것과 같은 사양을 입수하기에 곤란한 때도 있으므로 한 부분에 모아 붙이는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인조석 물갈기는 몰탈 바탕 위에, 대리석·화강암 등의 쉼석 입자(12mm이하)·안료·백색 시멘트를 혼합한 몰탈 등을 발라서 경화시 표면을 연마, 윤기내기하여 마무리한다.

#### (2) 도장공사

도장은, 옷칠, 뱅갈(bengal)안료칠, 묵도(墨塗:감물,松煙 등) 등 외에, 근대화 이후의 건물에서는 페인트칠(오일페인트)나 바니시칠 등이 건물의 내외장에 넓게 이용되었다. 이것들은 당초의 재료, 색채, 기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희귀하고, 후세에 교체도장이 몇번정도 행해진 것이 일반적이다.

칠수선을 하기 전에 우선 도장의 이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당초의 도장면이 남아 있는 부분은 도채(塗替)시에 손이 미

14)大壁(おおかべ)는 목조건축에서 벽의 한면을 판붙이기, 혹은 도장으로 하여 기둥을 바깥쪽에 나타내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함이고 眞壁(しんかべ)보통 외부에서 기둥이 보이는 벽.

15)시란계수지는 지중유구를 건물과 연결하여 건물내의 원위치에서 전기 보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함침처리법 등에서 사용하는 수지로 건조로 인한 갈라짐, 지중수분의 증발, 염분의 농축의 억제효과 등이 있다.

치가 어렵다. 후미지고 어두운 방이나 철물류의 그늘 부분에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찰하여야 한다. 또, 부재 표면의 도장면을 단계적으로 갈아내어 도장의 재료와 색조의 변천과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철의 색수선은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고, 창건 당초의 색으로 할 것인지, 변천도중의 색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용된 적이 없는 색을 채용할 것인지 등,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 도장 또는 채색에 대해서는, 기능자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법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충분히 전문업자와 협의하여 둘 필요가 있다.

### ① 오일페인트

현재 사용되어 있는 유성 페인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본래의 오일페인트는 보일유에 안료를 혼합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바를 때의 색은 건물의 이미지를 크게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덧붙여 오일페인트는 현재도 제조되고 있고 수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소재에 발랐을 때의 발색의 차이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에는, 비교 검토도 가능하다.

오래된 도막을 제거할 때는 구리스 모양의 박리재를 발라 도막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연화(軟化)한 도막을 조심스럽게 긁어 낸다. 박리재는 목재나 벽돌재등의 변질에 유의하고, 중성을 사용한다. 덧붙여 낡은 도막을 모두 긁어 내는 경우는 후세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재료를 일부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옷칠

재료는, 생옷칠, 투명옷칠, 동판용 흑옷, 금박, 토분(土粉), 숯돌가루, 풀, 톱밥, 섬유여물, 소맥분, 텔레핀유 등이 사용된다. 옷나무는 한국산을 100%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중국산 등 외산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옷칠의 기준 공정은, 낡은 칠층(漆層) 벗겨내기에서 바탕→기초→옷칠까지 30공정 가까이 있어서 각종 공정을 여러번 반복한다. 추가 마무리하여 금박 등을 하는 것도 있다.

### ③ 채색

도체(塗替)의 판단은, 파손 상황, 건물 전체의 수복방침과 대조해 소유자,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원형을 남기는 부분과 도체할 부분으로 나누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원형을 남기는 경우, 오물을 제거하고, 합성수지로 조심스럽게 보수 및 박리고정(剝離固定)을 시행한다.

도체를 위하여 외부의 이전 도막을 모두 긁어 낼 때는, 조각류(彫刻類)나 주요한 문양의 현치수 크기의 도면을 작성하고, 부분의 배색을 기록한다. 풍화가 현저하다면, 사광 라이트법을 이용해 도안을 복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늘음이 붙어 있는 경우는, 적외선 사진(디지털카메라) 등을 사용한다. 새로 작성한 문양은, 시공용의 도면을 작성해 시공 시에 원본으로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목록을 함께 보존한다.

### (3) 내장공사

내장공사에 이용되는 재료에는 벽부착재(벽지 등)나 바닥 붙임재(융단류)와 같이 몸체에 밀착되어 있는 것과 커튼 등과 같이 대용이 용이한 것이 있다.

내장에 관해서는 개변된 예가 많고, 또한, 보존 및 개수에 해당하는 사양의 설정은 방의 중요도나 계획 단계에서의 활용 방침에 의해서도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과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의장이나 공간성을 재현하려고 할 때는 흔적이거나 당시의 시방서, 고사진 등의 조사, 제조원의 확인, 당시의 유행 등도 조사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당초의 내장 사양에 대해서는 각방의 용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다른 방과의 비교 검토를 하거나 유사사례 건물과의 비교 검토도 포함한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

### ① 벽지

벽지 조사는 어떠한 종류의 벽지가(제조년대·재질 등), 어느 범위에 발라져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벽지(上貼)는 마감재이지만, 사양으로서는 바탕, 초벌 방법도 포함하여 이것들의 흔적이거나 당시의 시방서로부터 확인한다.

당초와 동질의 종이는, 입수가 곤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복원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비용적으로 단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입수 가능한 근사한 재료로 대응하거나 일정한 범위로 한정해서 복원하는 경우도 있다.

덧붙여 바탕, 초벌바르기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당초의 공법에 의해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공법이나 사양의 개선을 검토하기도 한다.

### ② 바닥재(카펫 등)

바닥에 깔개를 깔고 있었는지 어떠한지의 판단은, 바닥면의 마멸상황이나 못 등의 흔적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카펫 그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일단 해체하고 클리닝이나 부분적인 보수를 하여 다시 깔다.

융단이 망실된 경우, 복원할 것인가 대체품으로 치환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활용의 방침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시방서나 사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사양을 아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덧붙여 무늬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한 경우는, 무늬를 채용하는 것도 있다.

펠트재는, 카펫이나 리노륨 등의 기초재로서 이용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 ③ 바닥재(리노륨 등)

바닥의 해체시에 흔적, 당초 재료의 유무, 색, 무늬, 접착 방법등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된다. 근대 서양식 건축의 바닥 마감에 많이 사용된 재료였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고, 일본에서도 제조 중지가 되었다. 바닥재는, 해외에서는 펠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품을 들여올 것인지, 복원에 맞는 열화비닐 시트의 대응

폼으로 할 것인지 등의 방법이 있다. 교체할 때는 당초의 재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노륨은 충격에 약하고, 갈라지고, 금이가기 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취급을 신중하게 한다. 깔기는 일단 가(仮)깔기한 채로 수주간 양생하고, 리노륨의 신축이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고정한다.

#### ④ 커텐

커텐 장치는 건물의 조작하는 장치인 커텐 박스나 걸기장치 등과 떼어내기가 용이한 커텐지나 레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커텐 박스나 걸기장치 등이 없어진 경우는 흔적이나 다른 방 등의 유사사례에 의해 수리, 복원이 검토된다.

커텐지는 망실되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시방서나 사진 등에 의해 도안이나 재질이 복원 가능한 것인지 검토된다. 덧붙여 커텐에서는 타스셀 등의 철물 조사도 중요하고, 묶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삿포로시 호우헤이칸(豊平館)



<그림 2> 야마카타 현청사



<그림 3> 하코다테 공회당

#### (1) 조사

##### ① 전체적인 파손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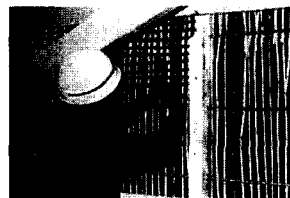
가. 구조상 무리에 의해 생긴 균열이 있다.

나. 설비류의 배관 및 전기류의 스위치 등에 의하여 뚫은 구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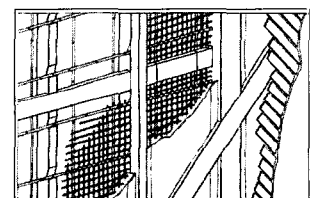
##### ② 수리전상황

가. 벽체

- 벽체 내에 기둥과 셋기둥에 띠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석고보드를 바탕으로 3회칠의 플라스터를 칠하고 있다.
- 벽도장은 플라스터칠 위에 녹색, 자색의 도장을 하고 있다.



<그림 4> 벽체 외벽기에서 칸넵기 부분의 시공



<그림 5> 벽체의 당초구성(호우헤이칸(豊平館))



<그림 6> 외벽기 바탕을 설치한 실험체

· 타일은 아스팔트 루핑위에 몰탈로 붙이고 있다.

나. 도배

· 플라스터 위에 4회의 벽지가 붙여져 있다.

· 도벽(眞壁)부분에는 셋기둥이 바뀌었고 전용된 것도 있다.

· 회반죽벽(大壁)나무외벽기 바탕에 회반죽칠 흔적이 있다.

다. 천장

· 창건당초에는 중심장식이 있었으나 1958년 이축시 플라스터칠, 널, 보드천장으로 바뀌었다.

공, 체공사 : 1986.7 - 1987. 9, 수리복원공사 : 1987. 10 - 1990. 9

### 3.3. 실내장식 수복의 사례

#### - 호우헤이칸(札幌市 豊平館)의 벽체 및 천장 수리공사 -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사례건축물은 일본의 근대건축물수복공사에서 최상으로 알려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체택하였다. 최근까지 일본의 수복 건수는 그 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볼 때 1500건에 이르고 있다.<sup>16)</sup> 이 중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근대건축물의 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건축물을 체택하였으며 그에 관련된 각종 문헌을 통하여, 그리고 당시 수리공사를 담당했던 관계자<sup>17)</sup>의 강연회와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삿포로시 호우헤이칸(札幌市 豊平館)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으며, 구야마카타 현청사(旧山形縣廳舎) 및 구하코다테 공회당(旧函館區 公會堂)은 보조자료로서 분석하였다.<sup>18)</sup>

16) 이는 도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중요문화재의 수리보고서를 2002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건축 및 근대건축, 전면수리 및 부분수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방문화재의 수리보고서는 제외된 것이다.

17) 이 세 건축물 수리공사 담당자는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의 키무라 쓰토무(木村勉)으로써 설계감리자로서 현장소장으로 모두 참가하여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18) 이들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삿포로시 호우헤이칸(札幌市 豊平館)

위치 : 홋카이도 삿포로시, 창건 : 1880년 11월, 설계 : 개척사공업국선과, 면적 : 528.8m<sup>2</sup>, 구조 : 목조건축(2층), 해체이축 : 1958년, 수리복원 : 1982년 - 1986년, 중요문화재지정 : 1964년

② 구하코다테 공회당(旧函館區 公會堂)

위치 :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창건 : 1911년, 설계자 : 函館市技師 코니시아사지로(小西朝次郎), 도판수 : 진 사부로우(甚三朗), 면적 : 본관:886.3m<sup>2</sup>, 부속동 133.9m<sup>2</sup>, 구조 및 층수 : 본관 목조2층, 부속동 1층, 수리 : 1980-1983.3, 중요문화재지정 : 1950년(부속동 : 1980년)

③ 구야마카타 현청사(旧山形縣廳舎)

위치 : 일본 山形縣, 창건 : 1916년 6월완공, 설계 : 山形縣 工師 타하라 신노스케(田原新之助), 용도변경 : 1984년까지 縣합동청사로 사용. 현재 도문화관, 연면적 : 1,864.6m<sup>2</sup>, 구조 : 벽돌조 3층, 수리 : 1990년 9월완

다. 천장둘레 몰딩부

- 이층 이전에는 4종류의 몰딩이 있었으나(고사진에 의해 판독) 이층 후에는 없어진 방도 있다.

(2) 실시방침의 검토

토벽, 회반죽벽, 천장, 몰딩의 당초사양을 자세히 파악한다.

① 토벽

- 벽 속의 외위기부터 복원.
- 없어진 칸막이 복원.

② 회반죽벽

- 기존의 플라스틱칠 및 락의 제거, 나무외위기의 복원 후 회반죽칠.

③ 몰딩부

- 당초부분과 다른 것만 복원.

④ 시험바르기

- 실험체 1칸을 설치하여 외위기 바탕설치
- 당초재료인 벽토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가장 유사한 벽돌용 점토를 사용, 모래, 짚여물 등의 재료를 조제하여 발라 알맞은 결과를 얻는다.
- 회반죽벽은 구하코다테공회당 수복시 이용한 사양을 채용.
- 플라스틱칠의 시험은 골재 등의 종류에 따라 시험칠을 하고 인장강도를 시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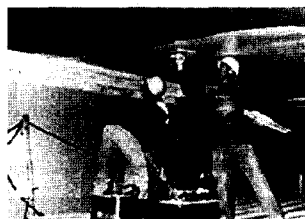
(3) 시공

① 토벽바르기

- 재료 : 대나무, 외위기 새끼줄, 점토, 모래, 여물
- 공법 : 칸넘기 외위기 바탕 및 가로세로 외위기를 새끼줄로 시행.
- 초벽칠 : 점토 현장반입시기 4월 중순이후, 물과 짚여물로 반죽, 5개월간 재움, 점토와 모래를 더 넣어 반죽 후 1주일 더 재움, 점토와 무르기를 조절하여 외위기 바탕에 비벼넣고 뒹면채우기, 첫바르기 이후 10일간 정도 건조 후 반복하여 바른다.



<그림 7> 외위기 위에 회반죽바르기



<그림 8> 라스보드 위에 천장 플라스틱칠하기

초벽 마무리: 앞의 반죽에 모래를 추가, 반죽하여 균열면에 눌러 바른다, 이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망사를 댈다. 기둥, 셋기둥과의 사이 틈을 6cm폭으로 바른다.

② 회반죽칠

- 재료: 소석회(미장용 JIS), 패회(貝灰), 모래, 해초, 여물(마

닐라삼, 바랜여물, 종이여물, 모시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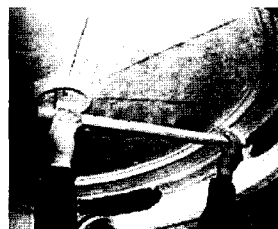
- 공법: 외위기 바탕에 회반죽 초벌바르기, 얼룩의 수선, 중바르기, 옷칠 순으로 시공.
- 외위기 바탕 : 모두 기존 재료(古材)를 사용, 당초의 흔적을 기초로 답습하여 제작한다
- 반죽하기 : 용기(구이)에 손반죽한 것을 하루 재워무르기와 점도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 초벌바르기 : 벽과는 달리 천장의 초벌바르기를 모시풀 걸기 못을 박을 때 진동에 의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우선 시행한다.
- 얼룩수선 : 초벌바르기 10일간 정도 후에 시행함. 이후 3개월 정도 건조기간 필요.
- 여물 티끌 덮기 : 먹내기를 하고 티끌덮기를 한다.
- 얼룩지우기 : 해초 도포 후 얼룩지우기 회반죽칠.
- 중바르기
- 옷바르기 : 중바르기 약 1일 후 시행, 하부, 상부 2회로 나누어 하부는 바랜여물, 상부는 종이여물 혼합바르기를 한다. 인두로 얼룩고치기로 마감한다.

③ 플라스틱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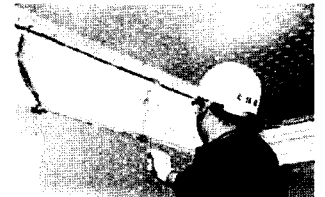
- 재료 : 라스보드, 못(스텐레스스틸), 골재(미장용강모래, 질석), 여물(마닐라삼)
- 공법 : 보드바탕에 플라스틱반죽을 칠하고 3회의 칠한다.
- 보드바탕 : 라스보드를 터커로 고정.
- 플라스틱반죽: 경화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시공을 요함. 기계반죽도 가능하다.
- 초벌, 중벌, 옷칠하기 : 초벌칠 후 하루 걸러 칠함. 옷칠은 건조상태에 따라 인두로 면고르기 병행한다.

④ 몰딩신규제작

- 판형뜨기: 판지를 재래 몰딩에 맞춰서 벗긴 다음에 그 형태를 두께 36mm 정도의 소성이 좋은 나무 마구리에 모사하고, 그 형태에 맞춰서 형구부리기로 굽힌 스텐레스판을 붙인다.
- 초벌칠, 얼룩수선: 천장 회반죽과 같다.
- 먹내기
- 자(定規) 붙이기 : 판형형태에 맞추어 줄자를 부착하여 회반죽으로 붙인다.
- 아래깎기 : 뒹 반죽을 조금씩 붙이면서 아래깎기를 한다. 완료후 줄자 떼어냄.



<그림 9> 천장중심장식의 수리하기



<그림 10> 기존 몰딩을 V컷트하여 수선하기



- 위깍기: 위깍기는 아래붙이기와 위붙이기의 2번의 깍기이다. 우선, 위깍기 하부용 회반죽(바랜 여물혼합)을 얇게 바르고, 깍기 형태로 쓰다듬어 붙인다. 다음에, 물먹임을 가늠해 상부용 회반죽(종이여물혼합)을 균일하게 발라 붙여, 재차 깍기 형태로 천천히 깎고 고른다. 완료 후, 벽을 쓰다듬어 올려 어루만지는 정도를 가늠하면서 마무리한다.

#### ⑤ 몰딩보수, 치장 수선

- V컷트 보수 : 우선 균열 부분을 V컷하여, 우레탄 수지 PSNY10을 도포해 함침 강화했다. 다음에 되게 반죽한 얼룩 수선용 회반죽·중철용 회반죽·웃칠용 회반죽의 순서로, 적당한 건조 기간을 취해 충전해 나간다. 덧붙여 충전에 즈음해서는, 신구 양면간의 접착을 잘 하기 위해서, 액폭 시계 수지(아랄다이드 CY230+에포에이트 B-002)를 도포하고 나서 행한다.
- 치장 수선 : 모든 기존 몰딩에 칠해진 페인트류를 박리제를 이용해 벗긴 후, 치장 수선으로서 자색(호분)의 카제인 도료를 바른다.

##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문화재 수복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실내장식에 관한 연구이다. 그 중 특히 근대건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의 보존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내장식의 부문은 건축적 부문이나 외장의 부문과 공히 동등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존과 함께 요구되어지는 건축물의 활용을 위한 전제로서 실내장식의 보존적 수복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연구는 우선 일반적인 문화재 보존의 개요를 정리하였으며, 국제적 기준에서 보는 실내장식을 포함한 수복의 일반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근대문화재에 있어서 실내장식의 수리와 복원을 위한 공종별 분류를 하고 공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실내장식의 주요 공사가 되는 미장공사, 도장공사, 내장공사의 주요 시방을 일본에서 최근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이같은 실내장식의 수복공사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위와같은 수복공사 기준이 정리되기 전에 행해진 3개의 건축물 수복공사에 나타난 수복현황을 분석하여 일본의 수복기준이 실질적, 기술적 바탕위에 정리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에 사용된 문화재수복현장에서는 국제적 보존기준에 의해 실내장식이 수복되고 있었으며 보존철학에 맞는 수복을 위해서 일반건축의 개수나 리노베이션 등에서 보이는 공사방법과는 다른, 과거의 상황을 복원해 내어 후세에 전하려는

노력과, 문화재 본질을 유지하는 공사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재의 실내장식 수복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며, 향후 과제로서 한국적인 현실에 맞는 실내장식에 대한 보존수복 철학이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구체적인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한국에 맞는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비문화재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실내장식 개조와 엔틱 디자인과의 연계성을 연구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장호수,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서울 2002
2. 鈴木博之, 現代의 建築保存論, 王國社, 東京, 2001
3. 三船康道 外,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學藝出版社, 京都, 1999
4. 大河直躬, 歴史的遺産の保存活用, 學藝出版社, 京都, 1997
5. 新建築學大系編輯委員會(伊藤延男 外), 新建築學大系50 歴史的建造物の保存, 彰國社, 東京, 1999
6. 木村 勉, 近代建築解體新書-修復の計畫と技術, 建築修復學會, 東京, 1994
7. 木村 勉, 金出ミチル, 修復, 理工學社, 東京, 2001
8. John Earl, Building Conservation Philosophy, The College of Estate Management, England, 2001
9. UNESCO, preserving and restoring monuments and historic buildings, museums and monuments, XIV, Unesco, Switzerland, 1972
10. Bernard M Feilden, Con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 Architectural Press, Oxford, UK, 2001
11. 澤田正昭 著, 김성범·정광용 공역, 문화재보존과학개설, 서경문화사, 2000
12. 平尾良光 著, 최영희 역, 문화재를 연구하는 고학의 눈, 학연문화사, 2001
13. 文化廳文化財保護部, 重要文化財(建造物)保存活用計劃策定研究, 東京, 1999
14. 札幌市, 重要文化財 豊平館保存修理工事報告書, 財團法人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東京, 1986
15. 函館市, 重要文化財函館區公會堂保存修理工事報告書, 財團法人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東京, 1983
16. 山形市, 重要文化財山形縣旧縣廳舎及び縣議事堂保存修理工事報告書, 財團法人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京都, 1991
17. 鈴木博之, 日本における近代建築保存の理論的研究, 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結果報告書, 東京, 2001
18. 財團法人 建築保全センター, 公共建築の保存活用 ガイドライン -別冊-, 東京, 2002
19. 奈良文化財研究所, 地域文化財の保存修復の考え方と方法, 奈良文化財研究所, 2000. 3.
20. 日本文化財國內委員會 憲章小委員會, 文化遺産保護憲章-研究, 檢討 報告書-, 1999. 3. 31.
21. 이 안, (구)일본 제일은행 인천지점 복원공사를 통해서 본 근대건축 보존의 문제점, 2001. 05. 19.
22. 김원, 특집 :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과 재생. 서울 성공회 성당의 복원. 대한 건축학회, 건축 9607.

<접수 : 2003. 10. 31>